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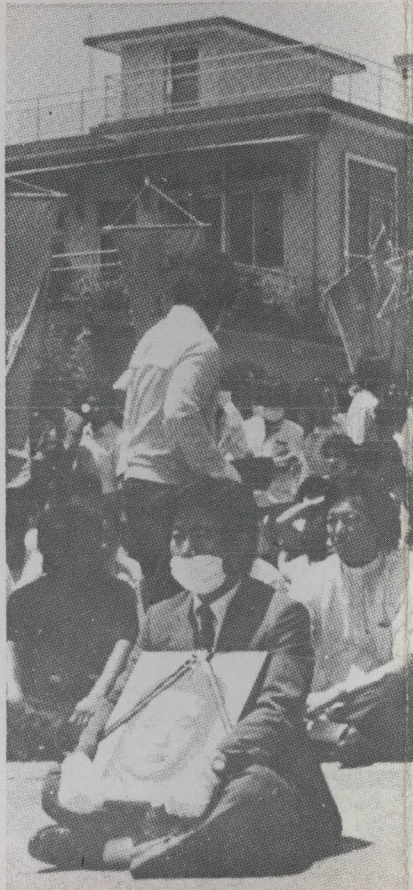
부산의 자부심

인권변호사

노무현

■ 약력 ■

- 경남 김해군 진영 출생 ('46)
- 부산상고 졸업 ('66)
-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75)
-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77)
-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 ('78)
- 부림사건의 변론 이후 학생, 노동, 인권 사건 등 변론 ('81 이후)
-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발기인 및 상임위원장 ('85)
- 민주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87~'88)
- 故 박종철 및 이한열 추모대회 집행위원장 ('87)
- 6·10 시민대행진 집행위원장 ('87)
- 대우조선 이석규 장례식 사건으로 구속 ('87)
- 11월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 당함 ('87)
- 민주쟁취국민운동 공정선거감시 부산본부장 ('87)
- 노동법률상담소 소장 (현재)
- 현재 박종철 추모대회 6월항쟁, 대우사건 등과 관련 5개의 죄명으로 재판이 계속 중.



부산의 자부심

인권변호사

노무현



사람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다리 저절로 덩실
 해방의 거리로 달려가누나
 아아,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아아,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기
 어머니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전면적 수배해제
 실시하라!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더 이상 안락
 권부동태 박살내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1. 한 많은 부산시민의 한판 썩풀이

자고나면 우리에게 항상 걱정밖에 없습니다.

자식들 교육걱정, 생활비 걱정, 물가가 오르면 살아가는 걱정부터 세상 돌아가는 세태에 대한 걱정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빠지게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기가 고작이고, 자식 대학까지 시키고 마음놓고 발뺌고 잘 자기집 한 채 장만하려는 꿈은 너무도 큰 것일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살림살이 -.

그러나 이제 우리 천대꾸러기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노무현과 똘똘 뭉쳐 재벌과 돈많은 정치배들이 '죽을판'으로 만든 이 세상을 '살판'으로 뒤집어 엮는 한판 '썩풀이'를 벌입시다.

작년 6월 우리는 그것을 해내었습니다.

2. 이웃 친지에게 진실을 알립시다.

우리에게 항상 절망과 가난, 고통의 멍에를 덧씌우는 자들에게 항거합시다.

거꾸로 된 역사, 개판의 세상. 일제때 왜놈에게 아부하여 호의호식하던 놈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 갑죽대고, 미국놈에겐 찢찢매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바둥대며 절규하는 우리 노동자·서민 대중은 갈아 뭉개는 재벌·특권 고위층의 횡포를 이제는 마음놓고 고발합시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끝났다고 떠벌리는 자들이 80년 5월 광주에서 수천 동포를 학살한 학살공범임을, 민정당이 이들 학살범들의 복마전임을 가족, 친지에게 알립시다.

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성실히 살아가는 노무현과 함께 진실을 외칩시다.

3. 누구라도 좋으니 직접 나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식사대접, 기념품, 돈 몇푼 받고 표찍어 준다면
우리는 그 국회의원을 우리의 대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선거때나 우리 노동자·서민대중에게 굶핍거릴뿐
돌아서면 우리 서민의 권리나 살림살이는 안중에 없고,
돈깨나 있고 힘깨나 쓰는 놈들하고만 어울리며
우리 동구주민이 준 표를 팔아 돈·권력이나 챙기는
국회의원이 수두룩 한 것은
우리 노동자·서민 유권자가
정치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이 되어 정직한 일꾼을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
작업복·설겅이 묻은 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우리 사람사는 세상을 노무현과 더불어 만듭시다.

주 소 : 동구 수정 2동 43-4 (대본빌딩 2층)
온라인 : 027-01-044295-1 부산은행 노무현
107-01-0256-227 국민은행 노무현

4. 적어도 좋습니다. 성금을 기다립니다.

있는 놈만 정치한답디까, 제기랄! 우리도 합시다요.
작년 대통령선거 이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노태우가 수천억의 선거자금을 풀어서 그렇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서 제멋대로 물붓든 돈쓰는 선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니까? 모두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혈세입니다. 우리 돈으로 선심쓰는 채 몇 십억씩
뿌리며 물가나 올리고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도적놈의 돈을
받지말고, 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자금도
채 없이 오직 돈 안쓰고 국회갈 수 있는 정치풍토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 요구·지역주민의 뜻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무현을 서로 도움시다.

민정당 공천자의 67%가 사장이나 부동산재벌입니다.
있는 놈만 잘살고 있는 놈만 있는 놈의 정치하는 개판을
갈아엎고,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의 희망을 채우는
신바람나는 정치를 위해 코뭉은 적은 돈도 좋습니다.
성금을 보내 주십시오.